

눈길끄는 특·특·행·정

# “도시서 배운 재주, 농촌에 품니다”

담양군, 귀농·귀촌인 대상  
천연염색 소품 만들기 등  
지역 재능기부 사업 추진



담양군 무정면 봉서마을에서 귀촌인이 지역주민들에게 천연염색 소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하는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해 ‘귀농귀촌인 지역재능기부활동 사업’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 중 재능기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담양군이 활동비를 지원해 재능기부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담양으로 전입한 지 7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5세대에게 재능기부 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식비, 다과비등을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실제 지난달 29일 무정면 봉서마을에서 천연염색 기술을 보유한 귀촌인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천연 염색소품 만들기 체험 활동을 추진해 마을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귀농귀촌상담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주민과의

융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반기에 사업을 확대해 3세대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어르신 낙상·미끄러짐 걱정 마세요”

나주시, 경로당 610곳에  
화장실 등 안전손잡이 설치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나주시 관계자가 경로당 화장실의 안전손잡이 이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어르신들의 험타인 경로당 내 미끄러짐·낙상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중순까지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 전남지역 최초 전체 경로당 610개소의 화장실과 출입문 벽면 등에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책 사업으로 노인 사고사망 원인 중 교통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로당 화장실 바닥 물기로 인해 노인들이 급히 들어가다 미끄러지면 뇌손상, 고관절·요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설 내 안전·편의

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19일 안전손잡이 제품 생산 사회적기업인 ‘주해피에이징’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달 초 손잡이 설치를 위한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 수량과 위치를 최종 확정했다.

이 안전손잡이는 몸체 표면이 실리코너로 제작돼 물 묻은 손으로 잡아도 미끄러지지 않고 기존 알루미늄 재질에 비해 겨울철에도 차갑지 않은 것이 장점이다.

또 손잡이 양단에 야광스티커를 부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화장실, 출입문 벽면 등 위치에 따라 손잡이는 소형, 대형, L자형으로 구성된다.

나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7월 말까지 경로당 610개소에 총 1900개(1개소당 3~4개)의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 ‘장성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회복 활력소

올해 273억원 발행  
지난해보다 14배 급증  
연말까지 10% 할인 판매  
가맹점 1430개소로 증가



장성군이 올 상반기에 273억원 규모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 경기회복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장성군 제공>

올 상반기 장성사랑상품권이 273억원 발행됐다.

전년대비 14배 늘어난 규모로, 경기회복에 큰 활력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품권 발행액은 총 273억원으로, 정책 발행 203억원과 일반 발행 70억원이다. 이 중 180억원 규모가 판매되거나 재난지원금 등으로 배부됐다.

가맹점 수도 크게 늘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초 1100개소였던 가맹점은 330개(30%) 늘어난 1430개소다.

특히, 상품권 환전액 증가세가 눈에 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과 놓여진 수단 등이 지급되기 시작한 4월에 20억7400만원, 5월에는 56억3400만원이 환전됐다. 장성사랑상품권이 발행을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월 평균 환전액 4억1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업종별로는 마트, 도소매, 식품점객업소의 환전액이 전체 규모의 62%를 차지했다.

또 농기계 및 농자재 상가에서도 약 6억원 규모의 상품권 환전이 발생해 농가경영에도 한 몫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은 당초 6월까지 예정됐던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2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발빠른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상품권의 지속적인 발행과 할인 판매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장성군, 주민 휴식공간 장성·성산공원 환경정비

수목 전정·풀베기·꽃 식재 등 마무리



장성군은 주민들의 산책 코스이자 휴식 공간인 장성공원과 성산공원(사진)의 환경정비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주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이뤄졌다.

장성공원 내 수목 전정과 시비, 병해충 방제를 위한 유지 관리, 잔디 깎기, 제초작업 등을 진행했다. 성산공원도 산책로와 운동기구 주변 풀베기 작업 등을 추진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였다.

어린이들의 학습·놀이 공간으로 이용되는 장성공원 내 자연생태놀이터 보완작업도 함께 추진했다. 놀이터 주변 바닥도 재장비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원 미관개선을 위해 ‘엘로우시티 장성’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수종을 식재했다.

장성공원 산책로에 붉노랑상사화, 털머위, 원추리 등을 심었으며, 주차장 부지 측대 벽 주변에는 황금담쟁이와 황금세덤을 식재했다. 양양길 장성군 산림편백과장은 “군민들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더욱 밝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나주시, 코로나19로 마한문화제·홍어축제 취소

나주시는 마한문화제를 비롯해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이던 축제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예초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9-10월)로 미뤄졌던 영산포 홍어축제, 천년나주목욕승문화축제도 취소됐다.

나주시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있

나 많은 인파가 모이는 행사 특성상 대인 간 밀접접촉에 따른 대규모 집단 감염을 우려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 대표축제 취소가 안타깝지만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내린 결정”이라며 “현재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지원에 집중하고 내년엔 더 나은 축제 개최를 위해 프로그램을 보완·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